

-(으)ㄴ세라

~할까 봐 염려하여, ~할세라

걱정을 문어적인 말투로 나타냅니다. -(으)ㄴ까 봐를 문어로 끌어올린 표현으로, 대화보다 소설에서 훨씬 자주 만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세라	깨다 → 깼세라
자음으로 끝남	-을세라	늦다 → 늦을세라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세라
뒤 절	조심하는 행동	발소리를 죽였다
시제 불가	어간만 씀	깼을세라(×)
구어 표현	-(으)ㄴ까 봐	깼까 봐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어간은 -ㄴ세라, 자음 어간은 -을세라를 쓰고, ㄹ 어간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: 만들세라.

앞 절에는 걱정하는 결과를, 뒤 절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기울인 조심을 말합니다: 아이가 깼세라 발소리를 죽였다 — 아이가 깼까 봐 발소리를 죽였다는 뜻입니다.

뒤 절은 조심하는 행동이므로 대개 조심스럽게나 부드러운 동작이 옵니다: 조심스럽게, 살며시, 죽이다, 감추다.

문체가 뚜렷하게 문어적입니다. 대화에서는 실제로 -(으)ㄴ까 봐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아이가 깼세라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다.
- 2 행여 늦을세라 서둘러 집을 나섰다.
- 3 눈물을 들킬세라 고개를 돌렸다.
- 4 행여 다칠세라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.
- 5 모양이 흐트러질세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.
- 6 비밀이 새어 나갈세라 목소리를 낮추었다.

■ 비교

-(으)ㄴ까 봐
뜻은 같고 일상적인 문체입니다. -(으)ㄴ까 봐는 말할 때 쓰고, -(으)ㄴ세라는 서사적인 산문에 속합니다.
깼까 봐 조용히 했어요. (구어) / 깼세라 발소리를 죽였다. (문어)

-지 않도록
-지 않도록은 목적을 담담하고 중립적으로 나타내고, -(으)ㄴ세라는 두려워하는 감정을 더합니다.
깨지 않도록 조용히 했다. (깨지 않게) / 깼세라 (깼까 두려워)

행여
'혹시라도'라는 뜻의 부사 행여가 자주 함께 쓰여 불안한 어조를 강화합니다.
행여 늦을세라 / 행여 다칠세라

■ 주의

- × 아이가 깼을세라 발소리를 죽였다.
- 아이가 깼세라 발소리를 죽였다.
-(으)ㄴ세라는 시제를 받지 않습니다. 걱정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- × 모양이 흐트러질세라 크게 흔들었다.
- 모양이 흐트러질세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.
뒤 절은 조심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. 부주의한 행동이 오면 앞에서 말한 걱정과 모순됩니다.
- × 야, 늦을세라 빨리 가자.
- 야, 늦을까 봐 빨리 가자.
-(으)ㄴ세라는 문어적입니다. 말할 때는 -(으)ㄴ까 봐가 자연스럽습니다.